

與, 손실보상 기준 '영업이익' 거론...상반기 법 제정 목표

기준 이익의 30%·50%·70% 차등 보상...최대한다 '캡' 설정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급 병행 20조원 규모 편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영업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 기준을 매출이 아닌 이익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 형태에 따라 정률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제한 조치별로 기준 이익의 30%, 50%, 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되, 최대한다인 '캡'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시행령으로 규율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상 원칙에 대해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매출액 기준이 판단하기에는 쉽지만, 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은 아니라는 고려가 깔린 것이다. 다만 당내서는 이익 기준이 합리적이라고는 해도, 이에 따르는 비용 계산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 의견을 존중해 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도 있지만, 매출을 토대로 해야

현실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순익 기준으로 하되 매출규모 등 산출이 어려운 영업장은 정액으로 지급해 보완하는 의견도 있다.

원내지도부는 일단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하면서 '발등의 불'을 끌 수 있게 된 만큼, 손실보상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준비한다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내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이날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보편·선별지급을 병행해 약 2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한 선별지원금 산정은 작년 12월 이후 정부 조처에 따른 실제 영업금지·제한 일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한 인사는 "재난지원금은 설 이후 논의하면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방역 우려가 지속되면 선별지급을 우선하고, 경제활력제고 필요성이 커지면 전국민 지급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



“어려울수록 연대합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방역·민생·경제 관련 법안처리에 총력을 기해서 입법성과를 도출하겠다”면서 “경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가장 적합한 경제정책으로 2021년을 코로나 극복과 한국경제 반등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온 이광재 “대권 출마 고심 중”

이용섭 시장과 광주 뉴딜사업 환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8일 대권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c 광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따뜻하고 강인한 대한민국’이라며 ‘대통령의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 돌아보며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기업을 광주에 유치해 민주화 일변지에서 혁신 경제의 일변지로 거듭나야 한다”며 “AI 기업을 광주에 유치하기 위해선 기업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지지율의 혼조세는 20대, 영남, 자영업자의 비판적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며 “대출 이자 지원,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어음 결제 방식 개선 등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안들을 민주당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또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광주 뉴딜사업과 관련해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서 힘을 보태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뉴딜분야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선택한 것은 잘 한 일이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오른쪽)이 28일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시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센서산업이 중요한 만큼 광주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면서 “센서와 IoT와 연계된 산업이면 앞으로 경제효과가 커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반등 노리는 이낙연

다음달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신복지 구상 등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당 대표의 오는 2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가 지지율 급락을 부르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권 전략에 차질이 생긴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지율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신복지 구상’ 등 당 대표이자 대권주자로서 보다 강력한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맞설 수 있는 정책 제시 등을 통해 대권 도전의 길을 다시 가다듬는다는 것이다.

2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교

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대권 주자로서의 브랜드가 담긴 복지 구상과 비전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 당위성과 함께 상생의 리더십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사면론’을 뒤로하고 상생과 통합의 메시지로 코로나 19로 지친 민심을 공략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평을 받았던 대권 주자로서의 ‘메시지’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뒤로 물러서기 보다는 오히려 이 슈화하면서 대권 가도를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 전후, 지지율 하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이낙연 대표실에 합류한 박시중 부실장은 “그동안 당 대표 신분이다 보니, 메시지에 신중을 기했던 측면이 강했고, 당 대표로서의 발언을 ‘대권 주자의 시각’으로 분석하다 보니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면서 “대권주자로서의 메시지 전달과 이슈를 끌어가는 행보를 본격화 하면 충분히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호남 민심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설 전후 광주와 전남지역 방문에 군 공방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챙기고, 80년 광주의 ‘대동 정신’으로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계호 특보단장을 중심으로 한 참모 그룹도 더 이상 밀릴 수는 없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대표의 측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상생연대 3법’ 2월국회서 처리키로

이들 연속 정책의총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등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었으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연달아 추가 일정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태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궤변과 뽀니를 멈추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상생연대 3법,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과 K뉴딜 등 정책 논쟁과 고민이 필요한 것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이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국가 재정은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재분배, 거시경제의 안정과 성

장유지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1차 대응에 나서는 것은 국가재정의 당연한 의무이다”면서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고 국가의 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균형 있는 정책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재정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은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균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